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1월 5일 (제723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Happy New Year!

할렐루야!

대망의 2014년! 우리 모두 희망의 배를 띄워 봅시다.
물론 가는 길에 폭풍도 만나고, 거센 파도도 만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폭풍과 파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는 훈련은 시키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들듯, 우리 인생사 고난과 역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믿음의 성장 촉진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짜는 이 세상에 없듯이, 노력과 훈련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요(눅18:27).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예수님은 '이것이면 돼' 하는 사람보다,

'이것이러야 돼' 하는 분명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 정신 버립니다.

소망과 꿈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도전과 모험이란 묘약을 먹고 꿈을 성취시켜 봅시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2014년,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朋友 이 초 석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2:1~10)



복있는 자들이 됩시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2014년에는 꼭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성경에는 '복'과 '축복'이란 말이 친구 악을 함하여 총 600여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와 일컫는 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 복 받는 길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12:1)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시1:2-3)라는 말씀과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5)와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준행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나니라"(창22:15-18).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2014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

다면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따



르 고,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물론,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은 정직하게 사는 것

입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시112:2-4). 정직하면 자신이 잘 되고, 부귀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의 창업주인 어느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4후퇴 때 대출 받은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 통에 무슨 돈을 갚는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하면서 어서 피난이나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굳이 대출한 돈을 다 갚고 난 후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절인 무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직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정직하게 좋은 절인 무를 공급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했고, 그것은 갈수록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여 그는

원양어선을 구입하여 직접 원양어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도, 마땅한 담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은행에 가서 사업자금으로 용자를 신청해봤습니다만, 아직 전쟁 상황인지라 대출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장로는 은행을 나오다 어수선한 때에 자신의 대출상환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은행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직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충공군요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장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그 장로는 은행장을 만나 무담보로 2억을 융자 받아

원양어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큰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덜찌구나' 하고 피난길에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장로처럼 행할 겁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만국공통화폐일뿐더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명한 일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그래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정직하게 사는 자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들, 눈속임하는 자들이 잘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탄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잠11:6).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와와 삼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판 후에 얼마를 감추고는 베드로

앞에 와서 그것이 다 인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을 맞았습니다(행5:1-11).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사람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정직합니다.

셋째,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이다"(시112:5). 9절에도 "저가 재물을 흙에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이름이 영화로이 들리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이고(잠19:17), 남을 구제하면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잠11:25). 구제에 힘쓴 고별료가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큰 복을 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바의 다비다 역시 구제를 많이 한 자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급히 불러 기도하여 살려냈습니다(행9:40). 죽었다 살아나는 대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남에게 주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행3:26). 그 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후8:9). 또한 죄와 병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갇힌 자를 놓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눅4:18). 복은 이미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2014년, 부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복이 사람을 쫓아와야 한다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신28:1-2).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만지는 그릇이 복, 하는 일마다 복, 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복, 네 땅에서 나는 과일과 곡식도 복이 되어 만민이 너를 부러워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신28:3-14).

아브라함이 그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난 일도 그렇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넘칠까 굴러왔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2014년 새해를 맞아 목사님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화평함으로 복 받은 유다



새롭게 맞이하는 축복의 새해 2014년, 기도하던 중 복 받은 자가 되기 위해 선한 화평을 이룬 유다를 깊이 묵상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생적으로는 유대민족이라면 모두가 갈망하던 장자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이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엔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 축복을 이끈 힘은 무엇이였을까? 어느 날 시기심으로 가득 찬 형제들이 멀리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보며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 그 때 한 형제만은 그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차라리 애굽으로 팔아 보내자 제

안한다. 이 제안은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계획하신 섭리에 가교역할을 한다. 이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한 형제가 바로 유다이다. 세월이 흘러 심한 가뭄으로 가나안 전 지역이 고동당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풍요로운 애굽으로 곡물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당시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자신의 친동생 베나민을 다시 데려오게 한다. 그토록 보고 싶던 베나민을 만난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베나민을 인질로 잡아 구속시키려는데, 이때 아버지의 가슴을 또 다시 찢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대신 나서 동생을 풀어주고 자신을 인질로 구속시켜 달라고 자청한 사람 또한 유다였다. 이 일로 감동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제들을 환대하고(창45:3), 사랑하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애굽으로 모셔올 것을 요청한다. 이 놀라운 소식에 야곱은 가슴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때 형제와 가문의 대표인 사신으로서 장자인 르우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보내진 형제도 바로 유다이다(창46:28). 이윽고 야곱은 임종직전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온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되라는 축복과 함께 새끼사자같이 연약한 그를 천하를 지배하는 숫사자의 위엄과 권세가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준다(창49:8-12).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다. 사람의 족보뿐 아니라 성경의 족보 또한 당연히 장자를 중심으로 쓰여진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말씀을 통해, 넷째였던 그를 영적 장자로 인정할 것을 보게 된다. 장자문화가 강조되는 유대인 세계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바로 형제들과의 화평에 힘쓰며 살아온 유다와

그 후손의 즐거웠던 것이다. 우리 곁에 유다와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으로 화평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총회장 목사님이라 말하고 싶다.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화평을 추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복이란 유산을 우리에게 전이시키고 계신다. 그 복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며 나의 은유함을 통해 후손 천대에 이르게 된다. 새해에는 내가 서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이 흘러넘치게 하자. 구원은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지만 축복은 축복받을 행위가 통로가 되어 내게 흘러들어온다. 유다의 복의 통로는 화평함이었다. 새해엔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화평함으로 내가 머문 곳에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들게 하자. 그것이 나와 내 교회와 후손이 하나님의 복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길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부산예수중심교회 이구원 목사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한다. 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정한 치아만 해도 치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남편 잘 만나면 남편복, 아내 잘 만나면 처복,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며 효도하면 자식복 있다고 말한다. 회사, 사업, 만남, 건강, 재물, 특기, 명예, 권력... 그 종류는 수만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 예부터 치마, 저고리, 밥그릇, 수저, 돈주머니, 대문 등에 운통 복(福)자를

세워 놓고 복 받길 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일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하리로다...”(시1:1-6). 곧 하나님은 죄악을 떠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영국 런던 템스 강 근처의 재판소 들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에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를 종자로 하여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 포도나무에서 다른 포도나무와 구별되는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그 포도나무는 뿌

리가 강바닥까지 뻗어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양분도 충분히 공급 받아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란 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행하는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복 받은 자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천한 목동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시온의 영광을 누렸던 정복자이며 권력자다. 역사상 기네스 북에 오른 채물 가진 자 중 한사람이며, 백성

들에게 준귀함을 받은 자요, 음악가며 시인이며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복을 받았다. 또한 예루살렘교단을 세우신 총회장 목사님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 생각한다. 전도집회 국가의 공랑에서 내리실 때, 그 나라의 성도들이 길가에서 국기를 흔들고, 카퍼레이드와 경찰들의 경호, 장관, 국회의원, 시장, 유지들의 환영, 접대를 받으시며, 집회 때 항상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국내에서는 100개 이상의 지교회와 해외 70개국 이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복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걸어오신 길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특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총회장님을 본받아 2014년도에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양주 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

진실은 통한다

::To Be Success::

‘지구촌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UN (United Nations) 사무총장. 그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연이어 두 번이나 당선된 그가 있으니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총주의 작은 시골마을 출신인 그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비결로 많은 이들은 그의 탁월한 능력과 함께 남다른 인품을 꼽는다. 어려서부터 남과 더불어 다투기를 즐겨하지 않는 온화한 성격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또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이에게도 머리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그를 남들보다 빨리 승진의

가도를 달리게 했다. 반 사무총장을 성공의 정점으로 이끈 것은 다른 아닌 그의 ‘진실함’이다. 그가 동료와 선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진했을 때, 몇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부터 그를 보호한 것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반 사무총장의 마음이 담긴 한 장의 편지였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이 오랜 분쟁으로 서로 민감한 국가의 대사들에게도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후에 그 국가들과의 문제도 힘들이지 않고 원만

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진실함은 겉으로 드러난 관계에 윤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까지도 친구로 만들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요4:23).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이를 입증하셨다(창4:1-15).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큰 금액을 넣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렵돈을 귀히 받으셨고(눅21:1-4), 눈물로 향유 욕함을 깨뜨려 당신의 발등에 쏟아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에게 감동 받으셨다. 서양 속담에 ‘사람을 가슴으로

대하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진실은 통한다’는 것이다. 대망의 2014년! 우리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성공과 부흥을 이루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도 덩어로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물질을 드러내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진실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일이다. 나의 진실된 마음과 행동은 사랑도, 하나님도 반드시 감동시킴을 잊지 말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인생을 살다보면 법사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솔로몬처럼 깨닫게 된다.

우리 교단 성도들이 드디어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 보다. 목사님께서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라는 금년 목표를 정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하셨으니(빌2:13), 우리 목사님 속에 그 소원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성도들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기회가 될 때 잡아야 한다. 복은 주실 때 마다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받듯이, 몸으로 때 고기를 잡자(고후6:2). 그러면 복을 받아보자고 마음먹으면 복을 받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 지금까지는 복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안 해서 복을 못 받았나? 그렇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지속하지 못

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다. 계속 두드리야 한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다(약1:5). 지속적으로 구하면 내 자신의 삶도 그 쪽으로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질축복을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축복을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건강해진다.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 쪽 방향으로 집중하면 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 받기 원하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올해는 기필코 복을 받고

올해는 큰 복을 받는 해

아 말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생각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로 그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여 그 복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셨다. 이것도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염두에 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초에는 ‘그랬어야지’ 하고, 가끔 목사님이 언급하실 때만 ‘그랬었지’ 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해와 별 다를 것 없이 후회가 많은 한 해를 살았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삶을 살게 되고 시간도 투자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그 방향에 남이 모르는 노후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쌓여 달인이 되는 것이다. 돈 버는데 달인이 된 사람, 노래하는데 달인이 된 사람,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각종 전문분야에 달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본다.

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생을, 혹은 오랜 시간을 추구하고 투명한 결과다. 이들 중 대부분이 그 분야

에 달인이 되어 그 분야를 주도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찬스에 무슨 복을 받아볼까 기도해 보았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교단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자나 깨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단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가 있으면 만족하다. 특히 나는 서울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전 교단 교회를 격동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온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교회, 가정, 직장, 사업이 튼튼히, 그리고 꾸준히 커가는 교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바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될 같이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정훈, 그 아름다운 이름::

새해를 새해답게!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새해 같지 않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새해가 그저 2013년 12월 31일의 다음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진 않나요?

작년 이맘때 저도 그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나름 새해 기분도 낼 겸 친구와 부산 여행까지 갔는데도, 영~ 새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평소 ‘이건 난 절대 못해’ 했던 것에 대해 도전해보기로요. 내기도 걸었습니다. 연말에 진 사람이 한우 등심을 무제한 쓰기.

제겐 ‘난 절대 못 해’라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운전입니다. 제게는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제트기 면허를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였지요. 교통사고도 겁나는데다가 길치에 방향치가 심해서 네 바퀴 달린 차를 끌고 어딜 가는 것이 아이 넷을 끌고 어딜 가는 것만큼이나 막막해 보였습니다. 네 평생에 운전할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해 왔었는데, 그날 탈럭 친구에게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2013년 1월 1일에 말이죠.

그 후로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루다가 어영부영 11월이 당도해버렸습니다. 11월 말에 중간 결산을 하는데, 글썄 친구는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망치로 한대 얻

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도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바로 다음날 운전면허 문제집을 풀고 다음날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그 다음 날 기능시험을 준비해서 이를 뒤 합격, 그 다음 운전면허학원을 끌고 퇴근 후 도로주행 야간 수업을 받고 2주 후에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 당당히..... 실격. ‘역시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운전이야’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성공한 이야기를 교회 신문에 꼭 쓰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재시험을 봤고, 합격했습니다. 그 때의 기분이란, 아~!

여태껏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었다는 걸 입증한 한 해였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스로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을 이루고 나니 2014년에는 뭐에 도전해볼까? 하는 기대가 먼저 들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부터가 작년과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새해나 아니냐는 날짜가 아니라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됐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년과 다른 새로운 나를 기대할 때 진짜 새해가 되는 것이지요. 새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2014년엔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시길 않겠습니까?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내가 아는 한 몸이 제쳤다네

예수의 길을 가는 한 몸을 만났다네

나도 따락 가려고 나섰다네

그 길은 참 험난했다네

그러나 앞서가시는 그 몸이 계시기에

뛰따르는 내 걸음 쉬웠다네

험은혜요 험은 축복인지!

남은 시간도 뛰따르기를 마관다네

주님의 입맞춤과 땀뭍은 맑은 그날까지

앞가서는 한 몸이시여!

강전다소시 강전다소시

다대 만으셨으리

남은 땅, 하나님께 드으신 뜻이 무서리

다대년의 더으신 영광 마관다소시

성광공공다대다대공공다대

무지런히 무지런히 다대다대다

대 빛난 다대다대대 대를 다대대!

2015년 12월 22일 목사님송영모님에게서